설날 가정예배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지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다같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에베소서 4:1-3 (다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인도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찬송 559장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
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HANSUNG PRESBYTERIAN CHURCH 한성교회

설날 가정예배

말씀 : 에베소서 4장 1절~3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1.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만큼 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사도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 붓을 들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거나,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하나 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힘써'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 될까요?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상대를 대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대하길 기대하십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가 성화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참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이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해야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역시'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의 하나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과 나눔

1. 설 명절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2.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할 4가지 자세 (겸손, 온유, 오 래참음, 용납)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